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지?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초기불교에서 인지과학까지 ‘마음’ 조명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와 혜가 스님의 문답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安心] 해주십시오.”라는 혜가 스님의 질문에, 달마 대사는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와라”라고 답했다. “마음을 가져오면 대신 안심시켜 주겠다”는 달마 대사의 말에 혜가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마음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는 “만약 찾았다 한들 그것이 네 마음이겠는가? 나는 이미 너를 안심시켰다”라고 말했다.

달마 대사의 이 말 끝에 혜가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다. 안심법문(安心法門)의 일화다.

혜가 스님이 마음을 찾던 끝에 얻은 해답은 일체 사물이나 현상이 본래 공적하다는 것이었다. 또 깨달음이 본래 마음에 있어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불교는 ‘마음공부’라 불린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됨은 물론, 다른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一切唯心造)’는 말처럼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마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일까?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제로 제5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초기불교와 상좌부불교(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유식불교(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선불교(윤원철 서울대 교수) △서양 철학(최화 경희대 교수) △정신의학(김종주 라경정신분석연구원) △인지과학(이정모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 등 각 분야별로 ‘마음’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초기 · 상좌부불교
-공은 마음이 행복 가져와

미산 스님은 주제발표 ‘변화무쌍한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에서 잘나심식설을 중심으로 마음을 설명했다.

스님은 “중생의 마음은 하루 동안 5만여 가지를 생각할 만큼 신란하게 변화 · 요동치고 있다”며 “마음은 연기적 작용을 통해 생성과 지속과 소멸을 잘나잘나 거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좌부에서는 물질현상이 생성 · 지속 · 소멸될 때 마음현상은 17찰나(0.2초) 생성 · 지속 · 소멸을 반복한다고 말한다.

미산 스님은 “참나설과 결합된 인식설이 상좌부의 마음수행론에 철저히 적용했다”며 “바르지 못한 화살이 과거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듯 공은 마음만이 내면의 고요와 평온,

윤원철 교수는 주제발표 ‘마음을 가져와라’를 통해 선불교적 시각으로 마음에 접근했다.

마음은 선종의 일대사(一大事)다. 윤 교수는 “선에서 주제로 삼는 마음이란 늘 그러함(如如) 마음, 즉 자성정심(自性淨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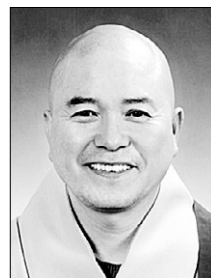
〈마조어록〉에는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이며, 일체의 명칭은 모두

본적으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본래 물질을 향한 인간의 영혼은 지상으로 특징되며, 공종의 작업이 이어지면 인간은 물질과 생명 모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의학
-의식은 마음의 일부분일 뿐
김종주 소장은 주제발표 ‘무의식

은 의연이 없는 생각하는 실체라 개념화했다’라며 “현재 마음에 대한 개념은 공간적 외연(확장)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공간적 외연이 있는 마음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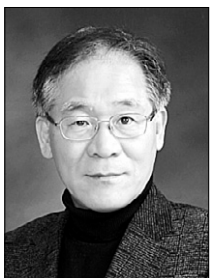
인지과학에서 마음은 한 사람의 뇌 속에만 갇힌 그 무엇이 아닌 환경과 통합돼 여러 사람을 비롯한 환경과 상호작용해 특징지어진다.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윤원철 서울대 교수



최화 경희대 교수



김종주 라경정신분석연구원 소장



이정모 성균관대 교수

기쁨과 행복, 지혜와 자비를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했다.

#유식불교
-나와 남의 한 마음 찾아야

한자경 교수는 ‘마음 활동의 두 층위’를 통해 마음을 표층의 마음(安心, 私心)과 심층의 마음(安心, 公心)으로 분류했다.

한 교수는 “자신과 세계를 공의 마음으로 자각하고 나면, 자신이 바라보는 일체 현상세계가 모두 자기 마음 안에 그려지는 마음의 변형이라는 것[一切唯心造]을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무분별한 전체에 대한 각성을 ‘본각(本覺)’이라 했다. 누구나 갖춘 진여 또는 일심(性自神解)라 했고 지혜는 ‘공적영지(空寂靈知)’라 표현했다.

한자경 교수는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一心)을 나와 남의 마음으로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며 “망심(망심)을 넘어선 본심(공심)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선불교
-마음은 만법의 근원

가 마음의 명칭이다. 만법은 모두가 마음에서 나왔으니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라 했다.

윤원철 교수는 “〈나옹화상어록〉의 ‘개가 뜨거운 기름 솥을 보고 할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것처럼’이라는 말과 같이 팽팽한 실존적, 인식론적 긴장을 그대로 (수행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선불교에서 전제하는 마음의 요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양철학
-영혼 탐구는 마음의 접근

최화 교수는 ‘생명의 능동적 운동’에서 베르그손의 이론으로 마음을 설명했다.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은 “과학적 지성을 통해서 인간이 궁극적 실재를 꿰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 서양철학자다.

최 교수는 “인간은 기억 속에서 물질세계와 만나며 그 속에서 산다. 그때그때 필요한 기억이 기억의 내부와 외부로 오가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신과 물질은 인간의 몸과 그것이 행하는 지각과 행동에서 만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화 교수는 “영혼 역시 근

을 통한 마음의 흐름’을 통해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마음을 해석했다.

정신분석에서 의식은 마음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다. 철학 등이 마음을 의식이라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김 소장은 “인간 의식의 대부분은 무의식으로 구성됐다”며 “마음에 대한 이해는 무의식의 흐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프로이트는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고, 라캉은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재계라는 주체성의 삼각구조로 분류했다.

김종주 소장은 “라캉의 무의식은 상징계의 기능으로 일종의 기억이다”라며 “과거의 누적된 업의 역사를 종자의 형태로 기억해 저장하는 근본적인 유식불교의 아뢰야식과 유사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지과학
-외연 갖춘 마음으로 확장

이정모 교수는 ‘뇌-몸-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 마음’에서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마음을 조명했다.

이 교수는 “데카르트느 몸은 공간적 외연(확장)을 지닌 실체며, 마음

이정모 교수는 “마음을 바라보는 등 · 서양 관점의 접점을 찾는 것과 같은 연결고리가 인지과학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일체의 근원이지만, 서양에서는 방법론적 접근과 인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의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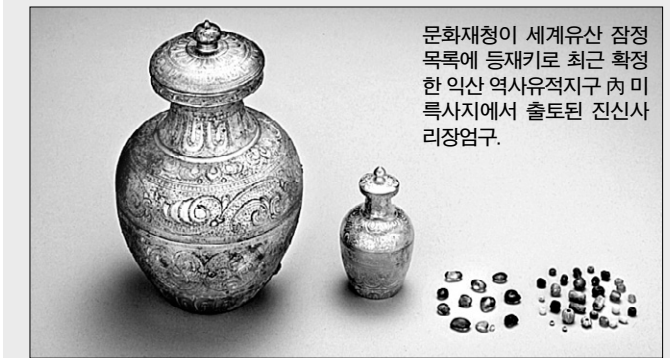
좌장을 맡았던 김종욱 동국대 교수는 “현대 학문에서 마음은 뇌와 몸과 환경이 연결된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라며 “이 움직임을 원리는 상호의존성이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라고 회통시켰다.

마음은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한다. 이 상호의존성이 비실체적 공성(空性)임을 통찰하는 것은 무념의 평상심에 이르는 길이다. 마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연기’와 ‘공’ ‘평상심’에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자료집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운주사 펴)의 사전출간을 비롯해 철저하고 짜임새 있는 준비와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불교 TV(www.btn.co.kr)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주동섭 기자

미륵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청, 문화유산 7건 등 확정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키로 최근 확정 한 미륵사지 유적지구 內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진신사 리장염구.

익산 미륵사지 인근과 부여 정립사지 인근 등이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잠정목록에 등재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익산 역사유적지구와 공주 · 부여 역사유적지구 등 7건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인 창녕 우포늪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규 등재하기로 확정했다”고 6월 9일 발표했다.

익산 역사유적지구는 사적 제 150호 미륵사지와 사적 제 408호 왕궁리 유적 등 백제 고대 수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지다.

공주 · 부여 역사유적지구는 사적 제 301호 부여 정립사지 등을 포함한 백제문화재를 대표하는 도성 유적지이다.

이 외에도 남한산성, 중부내륙 산성군, 아산 외연마을, 울산 대곡천 암각화군, 순천 낙안읍성 등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인 창녕 우포늪이 유네스코에 잠정목록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각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유산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사무국이 심사를 거쳐 등재된다.

한국에는 공주 무령왕릉, 안동 하회마을, 조선시대 왕릉과 원 등 문화유산과 설악산, 남해안 공룡 화석지 등 자연유산 8건이 잠정 목록에 등재돼 있다. 주동섭 기자

‘마음사상’ 6집 출간

청담사상연구, 청담 대중사 주제 논문 게재

청담사상연구소(소장 최희규, 이하 연구소)는 최근 <마음사상> 제6집을 출간했다.

논집에는 2008년 11월 연구소가 ‘청담 대중사의 포교사상’을 주제로 개최했던 학술세미나 논문과 기고논문 등 7편이 게재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자료집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운주사 펴)의 사전출간을 비롯해 철저하고 짜임새 있는 준비와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불교 TV(www.btn.co.kr)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마음사상』 제6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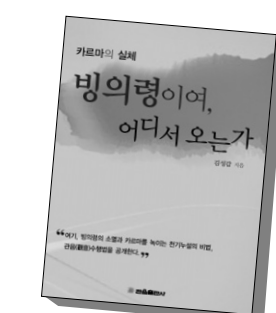
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불은사 대학생수도원(김광식 부천대 교수) △청담 대중사의 포교사상(김선근 동국대 교수)이 실렸다.

기고논문은 △청담 대중사와 도선사의 포교활동(김현남 신라대 외래교수) △청담 대중사의 마음사상과 자아정체성 교육(박충일, 전주산업대 교수) △문제의 명명사상 연구(선용 스님, 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등이 수록됐다. (055)751-3699

주동섭 기자

화제의 신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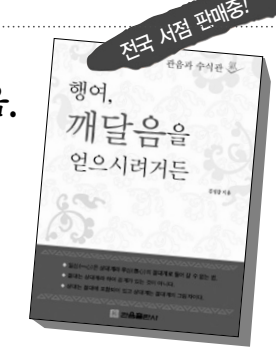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특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오소 라즈니쉬 지음 / 길연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육임이 보인다 파운 지음/4x6배판/양장본/70,000원	이계 풍수사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신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철승 지음/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자/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림,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료 전략 상담 -

특별상담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FAX(032)349-0665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1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